



경제 한파에 온정 식었다

광주사회복지모금회 기부금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연말연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올해 급속히 줄었다. 전반적인 불경기 여파에 내년 경제 전망까지 암울해 개인과 단체 모두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나'만 중시하고 '우리, 공동체'를 챙기는 의식이 희미해진 것도 기부를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다.

26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기부금액은 개인과 단체를 합쳐 21억8000여만원으로, 목표금액인 53억4900만원의 40.8%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억2970여만원(목표금액 51억8000만원의 54.6%)보다 7억5000여만원이 적은 것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목표금액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개인, 단체의 기부가 급감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에 따른 자영업체 경영난, 지역기업들의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해 기부할 여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하남산단 한 기업 대표는 "매년 꾸준히 직원들과 함께 십시일반으로 모아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했지만, 올해는 포기했다"며 "일감이 줄어 직원들에게 제대로 임금도 못주는 상황에서 남을 도울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희망 2019 캠페인 기간(2018년 11월 20일~2019년 1월 31일)이 아닌 연도별 기부금액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다. 지난 2016년 기부금은 개인 15만5551건(5억500여만원), 단체 3468건(4억4890여만원)

등 총 15만9019건(9억5400여만원)이었으며, 2017년에는 개인 15만3351건(5억4200여만원), 단체 3761건(4억8300여만원) 등 15만3351건(10억2500여만원)으로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증가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25일 현재 개인 9만7199건(3억8800여만원), 단체 3410건(3억4600여만원) 등 10만609건(7억3400여만원)으로 급감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시 지난해 90억4700만원을 모아 처음으로 목표금액(97억6400만원)을 넘지 못하는 등 기부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는 지난 24일 현재 개인 28억200여만원, 단체 14억5100여만원 등 42억5300여만원을 모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억2000여만원을 더 걷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기부자들이 지역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시간이 있는만큼 소시민들의 작은 정성으로 목표금액이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선 사회복지시설의 물품도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 남구정희망복지팀 홍연하 주무관은 "날이 추워지면서 돌봄계층을 위한 기부가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과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추워짐을 나누며 슬픔을 함께 했던 '광주 공동동체' 정신을 다시 한 번 떠올려 소외받는 이웃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동, 서해선북남철도, 도로연결 및 현대화착공식 2018. 12. 26.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한 김현미(왼쪽 네번째부터) 국토교통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남북측 인사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목포발 파리행’ 열차의 꿈 실현될까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 개성서 열려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첫 이정표를 세울 착공식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판문역에서 양측 주요 인사 각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다. 남측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6시 48분께 새마을호 4201호 특별열차를 타고 서울역을 출발, 도라산역을 지나 오전 8시 34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한 뒤 판문역에 도착했다. 북측 참석자들은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내려왔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착공식 본행사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윤혁 북측 철도성 부상이 착공사를 한 뒤 남북의 철도·도로 협력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리머니가 이어졌다. 남북 참석자들은 김현미 장관과 김윤혁 부상의 침묵 서명식에 이어 궤도를 연결하는 궤도 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을 함께한 후 기념 촬영을 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남북관계와 교통 등을 다루는 장관급 인사들을 비롯해 남북의 고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남측에서

는 정부 인사로 김현미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장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승용 국회 부의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여했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을 주빈으로 대남 경제협력사업을 담당하는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의 방강수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과 관련이 있는 국가인 중국·러시아·몽골인사들과 아태 지역 개발과 관련된 국제기구 대표도 행사에 함께 했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 정상인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이며, 연내 착공식은 9월 평양선언에 담겼던 약속이다. 다만 실제 공사를 개시한다는 의미의 '착공'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대북제재가 완화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날 착공식이 사업 시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착수식' 성격이라고 설명해왔다. /연합뉴스

檢, '민간인 사찰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청와대 운영전 국민소통수석은 26일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검찰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을 압수수

색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특감반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각각 자리 잡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협조하에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반부패비서관실·특별감찰반 문제인 정부 들어 처음

여러 가지가 있다"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소속 공무원·공공기관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후였던 작년 3월 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이런 규정에 근거해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불승인함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골프장 100억대 횡령 미스터리 아무도 몰랐나, 도운 인물 있나 ▶6면
새해 달라지는 것들 모바일 입영통지·아빠휴직 등 ▶14·15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NEW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잘 가, 피부 피로
잘 자, 내 피부

고흥 유자 6개를 고스란히 담아 유자비타민C 콤플렉스™의 향산화력으로
피부피로를 싸악 풀어 다음 날, 생기가 가득 환한 피부

한울 韓律